

史路 金日坤 博士

周.易.總.論

【周易의 理解】 上卷 目次

<1>편 易 經 總 論

(1) 易의 根本思想

I. 宇宙와 天

- 1) 人間과 時間, 空間
- 2) 太陽의 活動과 人間生活
- 3) 易經에 있어서의 天

2. 地球와 生物

- 1) 地球의 生成과 生命의 誕生
- 2) 系統發生의 反復
- 3) 易經의 科學性

3. 人生과 選擇

- 1) 天人合一의 思想
- 2) 性命의 理致
- 3) 生의 尊重과 올바른 選擇

(2) 易經의 生成과 構成

1. 古代人과 豫測

- 1) 古代人과 두려움
- 2) 殷나라에 있어서의 卜筮

3) 周나라에서의 易經

2. 易經의 成立과 展開

- 1) 古代人の 象徵
- 2) 占筮와 그 思想性
3. 易經의 構成
- 1) 오늘날의 易經 構成
- 2) 十翼의 內容
- 3) 易經研究의 두 方法과 易의 三義

(3) 太極의 原理와 卦爻 體用

I. 太極의 原理

- 1) 萬物 根源의 原理
- 2) 陰陽相對性의 原理
- 3) 波動 循環의 原理

2. 卦爻가 갖는 意味

- 1) 六十四卦와 陰爻 陽爻
小成卦와 大成卦 / 陰爻와 陽爻

2) 爻와 卦의 變化

變易과 交易 / 倒轉卦와 錯綜卦 / 配合卦와 互卦 / 本卦와 之卦

3) 九六과 位, 中正의 重要性

各爻의 名稱과 九六 / 位가 갖는 意味 / 中正의 重要性

4) 正應 相比와 吉凶悔吝 正應과 不應 / 相比와 承, 乘 / 吉凶悔吝

3. 體와 用의 概念

- 1) 體用一源
- 2) 天地人과 天人地
- 3) 黃帝內經의 體用과 東道西器

(4) 河圖와 先天 八卦

1. 河圖와 相生原理

- I) 河圖의 意味
- 2) 數의 根源
- 3) 五行相生의 原理

2. 伏羲八卦와 次序圖

- 1) 三才之道와 伏羲八卦(先天八卦)
- 2) 伏羲八卦의 次序圖

八卦次序의 形成過程 / 一生二法과 四象 / 八卦의 形成
3) 八卦의 活用과 六十四卦

3. 先天八卦의 方位圖

- 1) 先天八卦의 方位와 太極旗
- 2) 先天八卦와 四季의 循環
- 3) 六十四卦의 方圖, 圓圖

(5) 洛書와 後天八卦

- 1 洛書와 相克의 原理
- 1) 洛書의 意味
- 2) 洛書에서의 數理
- 3) 五行 相克의 原理

2. 後天八卦와 그 活用

- 1) 後天八卦의 配列
- 2) 後天八卦의 方位와 男性, 女性
- 3) 洛書의 活用

3. 河圖 先天八卦와 洛書 後天八卦의 比較

- 1) 河圖와 洛書의 比較
體와 用의 關係와 數理 / 動과 靜 / 相生 相克과 火 金
- 2) 先天과 後天의 比較
- 3) 皇極經世書

<2>편 易 經 上 經 1-30卦

<3>편 易 經 下 經 31-64卦

易經總論

【1】 易 經 總 論

人間은 宇宙와 自然 속에서 生을 營爲하고 있다.

易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森羅萬象을 陰陽의 相對性原理(principle of reciprocity)로써 把握하는 偉大한 思想體系이다. 易의 思想體系는 바로 宇宙와 自然의 理致를 담고 있는 것이다.

<1> 易의 根本思想

1. 宇宙와 天

1) 人間과 時間, 空間 .

宇宙(cosmos) 속에 銀河가 있고, 그 銀河 속에 太陽系가 있으며, 太陽系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地球라는 行星이 있다. 그런데 東洋에서 사용해 온 「宇宙」라는 用語는, 오늘날 天文學에서 사용하는 코스모스를 나타내는 同時에, 時間과 空間의 概念을 內包하고 있다.

宇는 집(우)로서 空間을一意味한다. 이는 사람을 基準으로 하는 東西南北과 .. 土下라는 「六合」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宙는 집(주)로서 時間을 意味한다. 이것은 古今往來를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가 日常 사용하고 있는 人間이라는 낱말은, 사람은 혼자서 살 수가 없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意味하고 있다. 「人間」은 「空間」과 「時間」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즉 人間은 바로 宇宙 속에서 宇宙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存在인 것이다.

2) 太陽의 活動과 人間生活

地球는 太陽의 둘레를 公轉하면서 自轉하고 있다. 이 때문에 1年 4季節이 생기고, 낮과 밤이 바뀐다. 그리고 偉대한 太陽에너지의 恩惠로 因하여 人間은, 生命을 維持하고 生活을 營爲해 나갈 수가 있다.

太陽의 光線과 熱은, 地球에 幅射함으로써 磁氣, 電離層, 氣候, 大氣의 變化를 가져오고, 動植物 그리고 人間에게 커다란 影響을 준다. 우리 人間은 太陽의 活動, 作用의 影響에서 한치도 벗어 날 수가 없는 것이다.

(太陽系の 行星)

太陽은 27日의 週期를 가지면서 自轉하며, 太陽의 黑點은 11年의 週期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太陽의 活動은 人間の 生活에 커다란 影響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太陽의 黑點 週期는 經濟에 있어서 景氣變動을 가져온다는 學說이 있다. 그리고 太陽은 대체로 80 - 90年의 活動週期를 가지는데, 이것을 合成하면 600-800年의 週期가 되고, 平均은 720年이 된다. 이 큰 週期가 人類의 文明 隆盛期の 東西洋間의 交代를 가져온다는 主張도 있다. (岸根卓郎, 文明論, 東洋經濟新報社, 1990)

이와 같이 우리 人間이, 偉대한 太陽의 活動에 따른 影響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不正할 수 없다. 易經은 바로 이 太陽의 活動이 우리 人間生活에 미치는 影響을 대단히 重要時하고 있다.

3) 易經에 있어서의 天

太古의 天地는 거칠고 무서운 것이었다. 人智가 아직 發達하지 않은 原始時代의 사람들에게는 천둥, 번개, 暴風雨, 洪水 등 自然의 큰 變動이 모두 두려운 現象일 수밖에 없었다. 이 때 사람들은 하늘의 힘이 얼마나 偉대한 것인가를 切實히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古代人들은 이러한 宇宙와 太陽과 달, 自然의 偉大한 힘을 통틀어서 「天」이라 불렀다. 사람이 도저히 拒逆할 수 없는 嚴肅한 하늘의 힘, 作用, 變化를 「天命」이라 하였다. 따라서 東洋의 文化는 宇宙, 太陽의 偉大한 힘, 즉 人間의 能力을 超越하는 어떤 絶對的인 힘을 「天」이라 하고, 이 하늘과 함께 하늘에 順應하며 사는 것을 가장 올바른 삶으로 삼았다.

따라서 天命, 天運, 天性, 天氣, 天壽, 天子 등 數 많은 天이라는 말이 붙은 用語를 使用했다. 複雜하고 微妙한 하늘의 創造와 變化 作用에 順應하면서 사는 것이 人間이 지켜야 할 道理라고 생각하였다.

이와 같이 하늘의 偉大한 힘이나 作用을, 人間의 觀點에서 體系化한 思想이 바로 易經이다. 易經의 첫머리에 하늘에 관한 모든 것을 상세히 敍述한 重天乾의 卦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리고 하늘에 관한 敍述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地球나 땅에 관한 敍述인 重地坤의 卦가 이어 지는 것이다.

宇宙, 太陽系, 天에 관하여 먼저 敍述하고, 다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地球,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易經은 天과 地에서 出發하는 모든 自然과 人間에 관한 事象을 體系的 으로 展開하고 있는 것이다.

2. 地球와 生物

1) 地球의 生成과 生命의 誕生

우리는 하늘을 머리에 이고 땅을 밟고 살아간다. 人間은 地球 위에서 사는 한 生物이다.

뿐만 아니라, 人間은, 地球 위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植物이나 動物을 食糧으로 삼아 生命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人間은, 地球의 運行이나 그 屬性의 테두리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地球가 公轉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四季의 變化가 일어나고, 또한 地球가 自轉하기 때문에 낮과 밤이 바뀐다. 사람은 이 春夏秋冬과 晝夜의 變化에 適應하면서 살아 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면 地球는 언제 생겼으며, 地球上에 生物은 언제 탄생했고, 우리 人間은 어떻게 生成되었을까. 現代科學의 研究成果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대체로 지금부터 46억전, 銀하계 속에 太陽系가 생겼다고 한다. 이 당시 原始의 太陽 둘레에는 소용돌이치는 가스와 먼지가 격렬하게 운동하는 가운데, 무수한 작은 行星이 생겼다. 이 微行星들은, 주변의 다른 微行星과 충돌, 그것을 자기 몸에 붙임으로써 成長을 거듭하여 「原始行星」을 형성하였다. 이 原始行星은, 微行星과의 충돌로 高溫이 되어 그 표면은 이글이글 끓는 상태였다. 이른바 '마그마 오션'의 세계인 것이다.

마그마 오션에서 증발한 가스는, 微行星의 충돌에서 발생한 가스와 더불어 地球의 原始 大氣를 만들었다. 이 原始大氣는, 二酸化炭素와 水蒸氣를 주성분으로 하되 알곤, 질소 등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酸素는 아직 地球大氣의 주성분이 아니었다.

그러다가 차츰 시간이 흐름에 따라, 地表와 그것을 둘러싼 대기의 溫度가 내려갔다. 차가워진 水蒸氣는, 높은 하늘에 대량의 구름을 만들었고, 地球에는 엄청난 큰비가 내렸다.

干潮

오랫동안 천둥 번개가 치는 暴風雨가 계속된 끝에, 地球上에는 바다가 생기고 강이나 호수가 나타났다. 비는,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大氣 속의 가스를 가져와 바다의 성분이 바뀌고, 오늘날과 같은 소금기가 있는 바다가 되었다.

많은 化合物을 포함하고 있는 바다는, 달의 引力으로 潮水와 干滿을 일으켰다. 썰물 때 물이 빠진 바닷가 진흙에는 微細한 化合物이 남았고, 이것은 강렬한 太陽光線을 받는다. 그러다가 밀물이 되면 거기에 다시 바다 물이 덮여 온다. 이러한 과정이, 까마득하게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된 끝에 前細胞 할 수 있는 것이 생겼다. 이 前細胞는, 膜을 가지게 되고, 그 膜 안에서 分子를 성장시키고, 分子가 차츰 복잡해져서 드디어 같은 것이 2개로 분열할 수 있는 細胞가 생겼다. 細胞는 2개씩으로 분열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단시간 안에 크게 증식해 나갔다. 이것이 최초의 生命 탄생인 것이다.

방금 생겨난 細胞는, 주변의 原子나 分子를 먹이로 삼아 살아갔는데, 그 가운데서 突然 變異로 인하여 다른 살아 있는 細胞를 먹이로 삼는 細胞가 나타났다. 에너지 섭취효율이 뛰어난 이들은 오늘날의 細菌細胞의 선조들이다. 그러다가 다시 이 細菌細胞와는 다른 細胞가 나타났다. 이 새로운 세포는 자기 몸 속의 엽록소라는 분자를 이용해서 二酸化 炭素로부터 자기가 먹는 蛋白質을 만들 수가 있었다. 이것이 곧 광합성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綠色細胞는 光合成에 의해서 酸素를 방출하였다. 오늘날 우리 人間이 生命을 유지하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酸素가, 그 당시 바다 속에 있던 細胞들에게는 처음으로 마주 치는 毒가스 같은 것이었다. 따라서 새로 나타난 綠色細胞가 만들어 내는 酸素로 인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은 細胞들이 사라졌다.

이리하여 地球의 大氣에 커다란 變化가 생기게 되었다. 綠色細胞들이 만들어 내는 酸素는 거품이 되어 空氣 속으로 올라갔고 이들은 太陽의 강렬한 紫外線을 받아 오존(O₃)을 만들었다. 현재 지상에서 10 - 50 킬로미터 상공에 있는 「오존층」은 그 당시에 형성되어, 오늘날에도 태양으로부터 오는 강렬한 紫外線을 막아 주고 있는 것이다.

酸素가 크게 증가하더라도 살아 남은 것은, (1) 물 속 뿔 밑에서 성장 번식하는 細菌細胞, (2) 酸素를 막아 주는 막을 가진 세포, (3) 酸素를 오히려 받아 들여 이용 할 수 있는 細胞 라는 세 가지였다. 이 세 번째 종류는 酸素를 흡수하고 綠色細胞가 필요로 하는 二酸化 炭素를 배출하였다. 즉 이들이 植物과 動物의 선조인 것이다.

DNA가 細胞의 핵속에 자리잡고 진핵세포가 출현한 것은 20억년 전이다. 이들은 오랜 세월을 거쳐 多細胞生物을 탄생시켰다. 이것이 발전하여 지금으로부터 6억년 전에 여러 가지 모양과 색깔을 가진 植物이나 動物이 출현하였다. 그리고 消化管이 있는 것, 筋肉 軟骨을 갖춘 것이 나타나고, 4억년전에는 최초의 어류가 탄

생하였다.

그후 地각의 변동, 기후의 변화가 일어 나는 가운데, 바다로부터 차츰 육상으로 올라오는 植物, 動物이 생기고, 3억4천만년전에 바다와 육지를 서식지로 하는 양서류가 발생 하였다. 이때 암컷과 수컷 즉 생물에 있어서의 陰과 양으로의 分화가 생겼다.

2) 系統發生의 反復

모든 生物의 個體發生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系統發生을 反復한다. 地球 위의 生物은, 魚類-양서류-파충류-蟲類 - 鳥類 - 哺乳類라는 過程으로 進化해 왔다. 그런데 이 進化의 과정은 새로 어떤 생명체가 발생 할 때 그대로 반복되는 것이다. 계란이 부화할 때, 4일에서 5일 쯤의 24시간은, 古生代 끝의 1억년의 進化過程과 같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서, 胎兒가 受胎 후에 30일이 지나서 1주일은 척椎動物의 進化나 바다로부터의 上陸過程과 같다.

이 1주일은, 進化의 1억년에 해당하며, 수태 후 32일에는 상어, 36일에 파충류, 38일에 鱉이 類, 40일에 인류가 되며, 70일에 오늘날과 같은 인간의 아기가 된다고 한다. 胎兒 는 어머니 배 속에서 羊水를 흡수하는데, 이 羊水の 성분은 바다 물의 성분과 거의 같고, 그 환경은 바다 속과 같은 것이다.

"오늘날 地球上에 生息하는 모든 生物은, 그 出生의 遠近을 불문하고, 原初의 生命球를 媒介로 하여 宇宙와 배꼽 줄로 연결되어 있다. 기(삼목성부 著 胎兒의 世界, 中央公論社, 1983, 東京, 152면) 말하자면 이 最新科學의 研究成果는 바로 人體가 小宇宙라는 易經이나 東洋思想의 基調를 그대로 證明하고 있는 것이다.

3) 易經의 科學性

易經은 음양과 오행을 가지고 宇宙, 自然, 人生을 모두 파악하고, 그 循環과 波動, 끊임 없는 變動을 설명하는 위대한 思想體系이다.

地球가 生成되고 生物이 여기서 삼계 된 과정을, 易에서 화-토-금-수-목으로 설명하고 있다. 최초로 太陽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地球는 火 즉 불덩어리였다. 이 불덩어리 地球가 식어서 土 즉 커다란 땅덩어리가 되었다. 땅덩어리 속에는 金 즉 온갖 土 石과 金屬이 있었다.

그런데 金生水 즉 金에서 물이 생겼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것은 韓國放送公社에서 과거에 방영했고, 비디오로 제작 시판하고 있는 <地球大紀行>에서 보면 잘 알 수가 있다. 거기서 보면 우주로부터 지구로 떨어진 운석을, 일본의 東京大學에서 섭씨 800도로 가열하였다. 그러자 시험관에 김이 서리고 이윽고 운석으로부터

물이 똑똑 떨어 졌다. 즉 地球上의 물은, 운석이 가져왔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韓國放送公社, <地球大紀行>, 제1편 기적의 행성 지구 참조)

다시 말하면 뜨거운 불덩어리의 地球에 외계로부터 운석이 날라와 부딪쳐 녹았고, 거기서 물이 나와 수증기가 되었으며, 이것은 구름을 형성하여 비를 내리게 하여, 地球가 차츰 식으면서 바다가 만들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물이 있음으로써 木 즉 식물이나 동물이 생겼던 것이다.

生物은 細胞波를 가지고 있으며 腦波가 있다는 것, 植物이 成長할 때 수직 방향의 나선을 보이고, 生命現象에는 分節성과 上極性이 있다는 것 등도 易經의 太極에서의 波動循環이나 陰陽相對佳의 原理와 같다. 그리고 生物에 대한 宇宙, 自然의 4대 영향은, (1) 太陽年'(春夏秋冬의 4계), (2) 太陽日 (밤과 낮) (3) 太음일(조수의 干滿)이라고 現代科學이 말하고 있는 것도, 바로 生物이 太陽이나 달의 영향 아래 地球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生命體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易經은 우리의 日常生活와 직접 관련되는 1年 4季節의 變化, 즉 봄(春), 여름(夏), 가을(秋), 겨울(冬) 이 循環하는 것과, 하루가 밤과 낮이 바뀌면서 돌아가는 變化를 이른바 天干과 地支로써 파악하여 人間生活에서 有用하게 活用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易經은 우리가 生을 영위하고 있는 地球의 誕生으로부터 生物의 創造, 그 진화의 과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人間の 生命體로서의 발전 그리고 그 生存의 모든 環境條件이나 生活에 影響을 주는 變化를 科學적으로 說明해 주는 것이다.

3. 人生과 選擇

1) 천일합일의 思想

人生은 주어진 自然的 社會的 環境條件에 한편으로 올바르게 適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自己가 살아가는 方向을 選擇하고 生을 창조해 가는 과정이다. 역경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人生에 있어서 가장 重要的 적응과 選擇에 관한 근본원리와 지혜를 가르쳐준다.

먼저 人生의 올바른 適應에 관해서 보자. 사람이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어떤 父母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이미 自己와 關係없이 定해진다. 그리고 사람은 天地 自然의 運行, 4季節의 變化와 낮과 밤이 바뀌는 것을 거역할 수 없고, 거기에 잘 適應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易」은 이러한 偉大하고 神秘스러운 天地, 自然에 대하여 敬1건한 感情을 갖는다. 거역할 수 없는 億大한 天地, 自然의 힘을 敬1건하게 諦觀하면서 거기에 順應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天地, 自然의 運行을 가만히 觀察하여, 그 속에서 法則을 發見하고, 거기에 올바르게 適應하는 것이 人生의 道理인 것이다. 말하자면 自然의 法則을 거역하지 않고, 언제나 人間이 스스로 反省하는 것이 人生의 올바른 態度인 것이다.

이러한 천지, 자연의 운행이나 힘을 '역'에서는 한마디로 '천'이라한다. 따라서 이 하늘의 道理에 맞추어 人間이 살아가는 것 즉 '천일합일의 사상'이 곧 易의 根本精神인 것이다. 따라서 東洋에서는 옛날부터 順天하고 하는 자는 生하고, 逆天하고 逆理하는 자는 亡한다고 했던 것이다.

2) 性命의 理致

易에서는 性命의 理致를 강조하고 있다. 「性」이라고 하는 것은, 生 + 心으로 이루어진 글자로서 삼아가는 마음이라 할 수 있는데, 易에서는 하늘의 造化, 道の 成長을 가리킨다. 사람은 1차적으로 感覺에 의하여 생활해 나가고 있으나, 그 윗 자리에 意識이 있다. 이 意識을 갖게 하는 것은 精神이며 精神의 윗자리에는 心 靈이 있다. 人間은 心령의 세계, 어떤 알지 못하는 하늘의 造化에 의해서 이 세상에 주어진 生命體인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造化에 따라 人間에게는 精神이 있고, 意識이 있으며, 感覺을 지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易에서는 한번 陰이 되고 한번 陽이 되는 것을 일컬어 道라 하고, 이 陰양의 道를 올바르게 이어가는 것을 善이라 하며, 陰양의 도를 이루는 것을 性이라 하였다. (繁辭傳 上5章) 여기서 음양의 도를 이루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빠짐 3단원)

3) 生의 尊重과 올바른 選擇

역은 생의 동학이며 어디까지나 生의 철학이다. 天地 自然 속에 있는 모든 生을 尊重하며 그 生을 育成하는 것을 가장 重要視한다. 따라서 天지의 대덕을 생이라 하고 (繁辭傳 下 1章), 生生을 일컬어 易이라 하였다. (繁辭傳 上5章)

그런데 生을 尊重한다는 것은, 生의 價値나 意味를 重要視한다는 것으로, 天地自然의 운행에 適應하면서도, 자기 人生을 올바르게 '선택'해야만 이루어진다. 따라서 易經은 우리에게 어떻게 올바른 選擇을 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준다. 말하자면, 自然의 理法에 올바르게 適應하면서도, 人生을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選擇의 知慧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事實 우리 人間の 삶은, 끊임없는 選擇의 連속이라 할 수 있다. 어디서 살고, 어느 幼稚園,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며, 어떤 친구를 사귀고, 대학은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선택하며, 직업은 무엇을 선택하며

(삼단 없음)

< 2 > 易經의 生成과 構成

1. 古代人과 豫測

1) 古代人과 두려움

古代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自己를 둘러 싸고 있는 모든 自然 現象이 이상 하고 알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천둥, 번개, 태풍, 홍수, 산불 등이 모두 不可思議하고, 어느 것 하나 두렵지 않는 것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한 자연재해가 일어 날 때 마다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언제나 自己生命에도 위협을 느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洋의 東西를 막론하고 옛날 사람들은 모든 自然에 存在하는 특이한 것, 즉 큰 나무, 바위, 동굴, 샘, 호수, 바다, 산이나 곱짜기 등에 무엇인가 초월적인 힘이 있다는 것으로 믿었다. 이것이 이른바 애니미즘(animism)으로써 自然物에 靈魂이 깃들어 있다는 原始信앙이며 精靈崇拜인 것이다. 古木이나 큰 바위에 향을우고 절을 한다던가 曲화수를 떠놓고 子息을 위해서 致誠을 드리는 일은 오늘날에도 우리 나라에 남아 있다. 말하자면 그러한 超越的인 것에 기도함으로써 災難을 피하곤 福을 얻으려 하였던 것이다.

한편 古代人들이 가장 두려워하면서 崇拜한 것은 조상의 혼령이었다. 따라서 돌아가신 祖上의 魂靈을 산 사람 처럼 제사 모시고, 災難이나 禍根을 피하고 福을 빌며 나아가 未來에 일어날 일을 豫測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祖上의 魂靈이 갖는 힘을 믿는 原始宗教가 곧 샤머니즘(shamanism)이다. 이것은 특히 아시아 여러 地域에 퍼져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盛行하여 巫堂, 巫俗이 오늘날에도 남아 있다.

옛날 사람들은 鬼神을 믿고 그 힘에 의지하려고 하였다. 귀는 힘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어떤 奇怪한 것, 신은 감각으로 포착할 수 없는 초월적인 힘을 의미하였다. 이러한 鬼神之 超越的인 힘에 의 하여 未來를 豫測하고 災難이나 禍根을 피하며 福을 비는 일에는 차츰 專門的인 職業人이 생겼다. 이것이 巫堂이나 占卜家인 것이다. 이런 일은 모두가 두려운 自然과 未來를 미리 알고 좋지 않는 것을 피하고 吉한 것을 얻으려는 古代人의 바램에서 나온 것이었다.

2) 殷나라에 있어서의 卜서

중국에는 기원전 15 - 1027 BC) 로부터 有史M각」 편집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앞엿건[J라가 있었다고 하나 이것은 傳說時代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殷王朝는[ㄱㄹ~편 東~}-운데 一部

가 河南平野로 y=o}-가 商邑(安陽)에 都邑을 建設한> 것으로~려지고 있다. -

그러나 殷이라는 國號나 王朝 이름은, 이 나라 사람들이 남긴 甲骨文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2次大戰이 끝난 以後에 많은 殷城가 새로 發見되고 상당히 많

은 甲骨文이 나왔으 나 殷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센란노 것은선굽
굽~1고 그후의 王朝 周나라에 서 麟고후競 것으로 보고 있다. 아마도 當또四코墨
堅!서 1jj尸1름인 다 가지고 聯邦을 代表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그러므로 오
늘날에눈浦(I 는 이름을 주로

.. 'J

使用한다.. W _

商(殷)에서는 政r~민! 등 모든 重要的 일을 問 t하여 決定하였다. 따라서 卜官을
重 用 하였다. 當時죄 占-~卜은 거북 등이나 動勉의』바를~객그느워 거기서 생
기는 균열의 모습 을 가지고 判斷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까다로운
것이였다. 금(龜裂)이 나가는 모~cf, 색깔 大·小, 明暗 등 모두 (i.2.np각씩에 이르
렀다고 한다. 그러므로 그후 屈나라에 와 서는 이를 簡色化하여 策竹을.利用하는
@]> 이 생긴 것으로 보는 것이다.

3) 周나라에서의 易經

周王朝隣 ~-].O는 257년간 나라로서, 이때 周易 즉 易經이 成立되었다.

:王나:~:W~; :: 二:王!~哀~-==~鬪:~;~~::적::!

한다 文王은 잡혀 있는 동안 隱忍自重하며 꾸준히 周의 國力을으만면L接養·하였
다고 한

다

武王j)134 - 1126 BC)은 暴君으로 알려진 殷의 討王을 民心이 그로부터 離脫하
고 百姓이 虐政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함에 따라 征伐하여 周王朝를 確固하게 成立
시켰다. 그리고 武王 이 서거한 후에는 엿보.JU._{l보i ... ::: ... 보79 BC) 이 卽位
하였는데 이 成王을 叔父덴접公.(旦) 이 잘 ~여 王業을 탄탄하게 하였다. 그 후
康王時代に 完선沮묘갯~+ :?IL번영하였다.

쉬1- .

이 周8y~~전이 成立되었기 때문에 흔히 周易~라 부르고 있다. 이 周易 以前
에도환易 藏 。이 있었다고 하나 오늘에 전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에 전해진
~

周易 즉 易經에는 츠尹' 武王, 쯔~에 관한 歷史的 塗事が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
다 .

2. 易經의 成立과 展開

1) 古代人の 象徵

周나라 때에 易經이 成立된 것은, 古代로부터 내려 온 來에대한 豫測 즉 占卜을
당시에도 숭상하고, 政治 軍事上的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많이 活用했기 때문이
라 할 수 있다.

흔히 易經을 完成시킨 사람은 0 00 으로 꼽는다. 伏羲는 傳說의 인물로 알려
져 있는데 그가 八卦를 처음으로 創製했다고 한다. 팔괘를 지었고, 文公은 효辭를
지었으며, 孔子가 여기에 십익을 달았다고 한다. 이 가운데 두 사람이 周나라 王
朝의 사람이기 때문에 伏羲의 팔괘를 이어 받아 周나라 초기에 周易의 體系가 거

의 形成되었다고 할 수 있다. -

陰을 - - 이라는 부호로, 陽을 - 이라는 부호로 하여 伏羲가 八卦를 創製했는데 (빠짐)

여기서 볼 수 있는 하늘, 못, 불, 우뢰, 바람, 물, 산, 땅은 古代人들이 산아 나가면서 그 體驗을 통하여 가장 위대한 힘을 가진 것으로 믿었던 것의 象徵이라 할 수 있다. 말하 자면 周나라 사람들은 이 여덟 가지 요소에 000을 통하여 00에 관한 00을 하려 했던 것이다.

2) 占0와 그 思想性

八卦에 의하여 未來에 관한 여러 가지 豫측을 하려는 경우에 그 判斷의 基準이 되는 要素가 적기 때문에 應用上의 限界를 느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을 할 수 있다. 이리하여 八卦를 두개씩 上下로 組合하여 64卦 00 活用하게 된 것은 西周의 初期로 推定되고 있다.

00를 가지고 그 卦0의 變化를 통하여 周나라 사람들은 宇宙 自然 國家 人生 등 모든 것의 未來를 豫測하러 하였다. 數0年] 정성00하고 占0를 행한 끝에 그 成果가 檢討되어00

17페이지

易經이 이와 같이 오랜 세월 동안 그 體制를 整備하여 體系를 完成시키는 가운데 거기에는 獨自의인 思想性이 담겨지고, 哲學的인 깊이가 생겼다. 그리고 이것이 知識人에게 普及 되어 차츰 權威를 지니게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3) 戰國時代 孔子, 00易

陰陽 八卦로써 活用되어 오던 周易에 五行 思想의_00들어가게 된 것은 戰國時代 이다.

000라는 五行의 思想이 도입되면서 그 전까지 주로 剛柔를 가지고 모든 것을 논 하던 것이 바뀌어 陰陽五行에 의하여 論議와 判斷을 하기에 이르렀다.

00(552 - 479 BC) 께서 나와 人倫을 重要視하고 家族 集團主義에 의한 새로운 國家 社會의 秩序를 定立하는 00」思想_體系를 세상에 가르치게 되었다. 孔子는 흔히 「韋編三絶"」이라 하여 당시 竹간으로된 책을 엮은 가죽 끈이 세번이나 떨어질 정도로 易을 열심히 研究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 陰陽五行의 思想은 活用的 범위가 넓어져 多方面에 걸친 應用의 길이 열렸다. 그러다가 戰國時代 末期가 되고 秦나라가 탄생하였다. 秦 (221 - 206 BC)의 始皇帝는 天下를 統一한다던가 萬風長城을 쌓는다는 偉業을 남겼으나, 焚書抗儒를 한 것으로 有名하다. 始皇帝는 儒敎나 儒學者를 탄압하고 思想에 관한 書籍들을 거두어 모두 불에 태웠으나, 이 때 易書는 00라하여 禍를 면하였다.

000 (C - 7 AD, 後漢:25 - 200 AD) 에 이르러 易에 대한 研究는 크게 進展 되었다. 널리 漢易이라 불려지는 이 時代의 易은 주로 象數에 치중하고 占서에 관심이 높았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孔子가 서술한 것으로 00 現代에 와서

자세한 考證과 研究를 한 結果 이 漢時代에 生成되 綜合되어 오늘의 易經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 졌다.

3. 易經의 構成

1) 오늘날의 易經 構成

오늘날 널리 읽히고 있는 易經의 다음과 같은 構成을 가지고 있다.

0000(빠짐)

(火)에서 끝난다. 下經은 주로 人事 즉 사람과 관련되는 原理를 00하여 少年과 小女가 사귀고 婚婚하는 것을 象徵 00 0女가 結婚하여 오래도록 함께 사는 일을 象徵) 으로 부터 出發하여 概濟 (모든 일의 끝마무리) 00 (00 후에 다시 시작) 에서 끝을 맺고 있다.

그리고 各卦의 構成 順序는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 1 > 乾 卦 : (1) 卦辭 (2) 彖辭 (3) ~辭 (4) 大象 (5) 文言

< 2 > 坤 卦 : (1) 卦辭 (2) ~辭 (3) ~ (4) 繫辭, 小象 (5)' 文言

< 3 > 其他의 卦 : (1) 卦辭 (2) 彖辭 (3) 大象 (4) *辭 小象 ~-

이러한 易經의 構成은 宋代에 와서 00을 定立한 朱子 程王등이 편찬표」 0系

이다. 朱子(朱熹, 00), 程子(程伊川 程明道 . 00)는 過去부터 전해져 온 儒敎의 모든 經典을 새로운 視覺에서 再檢討하고, 體系나 編制를 새로 하며, 主釋을 달아서 整理하고 集大成하였다.

朱子는 당시에 널리 보급되고 있던 佛敎의 敎理나 經典을 檢討하고, 그 思辨 哲學의 基本원理를 儒敎의 解釋에 援用하면서도, 오히려 이러한 論理를 가지고 00을 아주 00하였다. 그러므로 00의해서 새롭게 集大成」 00

宋代의 儒敎를 「新儒敎」 라하고, 그 이전 孔子, 孟子등의 儒敎는 「000」 라 부르고 있다.

易經에 관한 現在의 體系도 이러한 000 새로운 整理와 集大成的 勢力에 의해서 定立된 것이다. 그 이전에 있어서는 卦辭 000 먼저 나오곤 000 등은 따로 編制되는 등 易經의 體系가 각기 다르게 되어 있었다.

十翼의 內容

"_

易經은 卦辭와 繫辭가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 온 것이고, 거기에 十翼이 더하여져서 오늘날의 體系를 갖추게 되었다. 흔히 이 十翼은 孔子가 지은 것으로 말해지고 있으나, 이는 假托이라 보고 있다. 그리고 十翼에는 모두 0傳」 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이것은 본문의 뜻을 풀이하거나 解說한다는 意味이다.

十翼은 열 가지 날개를 달아

알게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다. ~

易經總論 19

< 十 翼 >

1. 繫辭傳 上
2. 繫辭傳 下
3. -
4. 傳 下
- 5
6. 象 傳 下
7. 文言傳
9. 說卦傳
- 10 雜卦傳

- .. -, -'.

00, 斷定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대체로 그 卦의 練說的인 內容을 담고 있다. 단은 各卦가 보여 주는 形配 000 보여 주고있다. 그리고 이 0傳과 象傳은 오래된 글로서 韻文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繫辭]는 易學概達에 당하며 文言傳의 序論과 같은 性格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拙簡이나 脫落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評價되고 있다. 文言傳은 옛날에는 全部의 卦에 있었는데 大部分이 없어지고 지금은 乾 坤 卦에만 남아 있다고 한다. 微卦傳」尼 各卦에 대한 별도의 解盤음—한 것으로, 000解說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00 은 各卦에 대한 解說이나 各論적인 性格을 띄고 있으며 [大學]과 共通되는 文章을 포함하고 있다. 「序卦傳」「雜卦傳」은 占筮家의 易에 관한 解說로 보고 있으며 多00 期の 作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易經 研究의 두 方法과 易의 三義

易經을 研究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接近 方法이 있다. 하나는 學問 또는 宣接에 관한 根本的인 理致를 研究하는 것으로 이를 「理研究-」라고 한다. 이 義理學派는 주로 朱子 程0를 중심으로 하여 宋代 및 明代원」현者들이 追求하였다. 다른 하나는 敍筑 또는 靈的인 것을 研究하는 것으로 이를 역0研究」라고 한다. 이것은 주로 漢代에 많은사람들이 追求하였다.

000

말한다. 「盡性」은 性과 命을 주로 精神的인 修養을 통하여 깨닫는 것을 일컫는다.

20 易經總論

<易의 三의> : 삼義 즉 세 가지의 뜻이 있다고 한다. 이것은 後漢의 學者 鄭玄 (127 - 200) 이래의 通說이다.

- (1) 00: 이 세상의 모든 現象은 끊임없이 변한다. 易經에 관한 經書(The Book of Changes) 이다. 따라서 變化하는 原理나 根本을 뜻한다.
- (2) 不易 : 000 春夏秋冬의 四季節이 있다는 것 - 1. 이와 같이 바뀌지 않는 것의 理致를 易은 가르쳐 준다.
- (3) 簡易 : 變化하는 것과 變하지 않는 것의 理致를 易은 0고 간편하게 알 수 있게 한다. 이것은 000 이라는 말의 易簡에서 000은 말이다.

< 3 > 太極의 原理와 卦0, 體用

L 太極의 原理

1) 萬物 根源의 原理

易經은 太極으로부터 출발한다 太極은 이 세상 모든 것의 00 源이다. 그러므로 萬物이 여기서부터 創生되어 進化\$힌료한고 또한 萬物은 여기로 歸結한다 .. 太A라는 글은_크다는 뜻과 첫울이면 비릇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 「極」 이라_는 글은 끝이며 덩어리라는 뜻 이다. 따라서 生命體를 비릇한 萬物의 根源이나 본바탕이 곧太極인 것이다.

크게는 宇宙 創生の 根源이 太極이다 _0000 의점1서 주장된 「빅뱅 理論」은 이 방대한 宇宙가 아주 작은 하나의 0粒子로부터 大爆發하여 이루어 졌다고 한다.

粒子가 하나의 불덩어리가 되고 이윽고 超造溫의 0000000

(無極) (太極)

易經練論 21

地球上에서 처음으로 生命이 誕生보"쳤源효 太極이다. 最初에,-fi!jei:,~ 생기고 이것이 두 개씩으로 分裂함으로 씨 生命體가 祖成되었다. 이(細胞 分裂의(&源아 太極인 정이다.

W動物의:경우受括뒤—상태각-~極으]며, 여기서 細胞가 分裂하여 새 生命이 태어나게 된다- ~直物외 경우는 하나의 씨으L이 바론 ... if.區의며, 이 씨앗이 땅 속에서 자라 地上으로 올라 올 때는 두객~ 나오고 여기서 각기 정해진 遺傳子에 따라4超한함 나무나 풀이 자라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太極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宋나라의 周廉溪(1017 - 1073)는 元極인> 곧 太極이라 주장하였다. 이 元極은 無始無終의 狀況이라 하는데 無에서 有가 생겼다는 것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元極에서 有始有終이라 말해지는 太極이 왜 생겼는가. 太區의—천읍 으로~-성거-난 것은 短宙의 意志 혹은 超越考나—社웠」뜻이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 로 易經은 이러한 絶월約의 교」祖翫的인 어떤 힘이나 意志를 「天」 이라 하고 그것은 順應 해야 하며 担逆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2) 陰陽 相對性的 原理

太極은 聽과 錫외 相對性 原理를 지니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現象에는 陰과 陽이 相對 또는 相待하는 기운이 있고, 萬物은 陰陽이 相對, 相待하는 가운데 變化

發展한다. 生命體 에는 암컷과 수컷이 있어 이것이 서로 相對하며 補完하는 가운데 分裂하고 成熟하며 그 子 孫이 發展한다.

夏至

사람도 男조각 있고 女국가 있어 서로 짝을 맞 나 婚.~화으로써 家庭을 이루고 子孫을 繁榮시키 게 된다. 宇宙도 相對性 原理에 의해서 이루어지

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홀수가 있으면 짝수 春分

가 있고, 東이 있으니 西洋도 있는 것이다. 生命體에는 陰이라 할 수 있는 알칼리와, 陽이라 할 수 있는 酸이 있는데 한쪽은 다른 쪽의 基가 된다.

秋分

冬至

(太極 · 陰陽과 四季節)

中國의 來知德은 太極圖를 해석하여 “對待者數 主宰者理 流行者氣” 라 하였다. 여기서

---tJA曰

f.d) ~ l. • 、검tt. '=' 1 7e <Lt

三l 理와 氣:rJ;Wiit;~;~年 동안 理氣 論爭을 일으킨

陰이 있고 陽이 있으며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서로 相對 하고 補完하며 和合함으로써 새로운 創造과 發展이 있음을 뜻한다. 만약 陰과 陽이 調和를 이루지 않는다면 그것은 不和가 되어 좋지 못한 인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易에서는 陰陽의 租이나 中和를重要視하는 것이다

3) 波動 循環의 原理

太極은 萬物의 根源이고 陰陽 相對性의 原理를 지니고 있으면서, 또한 波動 循環의 京理 를 가지고 있다. 지금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太極圖의 陰과 陽이 서로 맞물리고 있는 모습에는 波動을 그리는 曲線이 들어 있는 것이다. 이 曲線은 陰과 陽이 바뀌어 가는 모습이며, 또한 波動 循環 週期 등을 나타내고 있다. 이 세상의 모든 自然現象은 光線 소리 電子 할 것 없이 波動을 그리거나 一定한 週期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 r-u - ----fW二二'--r----

(太極의 波動}과 循環)

사람은 숨을 쉬지 않으면 살아 갈 수가 없다. 이 사람의 呼吸도 바쿠 循環이며 波..!인 것이다. 그리고 現代 醫學에서 인정하고 있는 人間生命體의 循環 現象인

「바이오 리듬」(Bi o-rhythm)도 있다. 이는 사람은 그 誕佳日을 基準으로 하여

(1) 身~F~건뜨l)눕1_3日,

(2) 感情 (sens i iiv ; ly) 요 2타 (t 知性J/nte U교다) 은}}fl.,라는週期를 가지고 있다는I生物的 週期 現象이다. 그리고 }이오 리듬에서는j皮動을 그리는 各 曲線

의 變曲點을 要注意日 또는 危險日 이라 말하호7찮갑7크린데of것은 易經에서 大成卦의 下卦에서 上卦 로 바뀌는 三것 또는 四것에 危險하다 注意하라는 등의 警戒辭가 많이 나온다는 사실과 유 사하여 흥미롭다.

陽 +

/

易經總論 23

우리 人間은 春夏秋冬 四季節의 循環 - 年 연두 단의 바뀜, 一週t3 이나 낮과 밤의 反復 이라는 週期 속에서 그에 適應하면서 산아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人間은 一生 자체도 出生, 幼兒期 少年期 青年期, 壯年期 老年期 死亡이라는 週고요;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 個人의 一生은 一直線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速勳의되· 浮~1 반드시 따르는 것이 다. 따라서 波動 循環 週期 등은 人間 生活과 떨어질 수 없는 重大한 영향을 미치는 現象 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國家나 民造엔도 兎藍~각 循뵐~씩 있다. 歷史를 보면 어떠한 強大國도 永遠히 繁榮한 인이 없다는 事實을 쉽사리 암 수가 있다. 그러므로 太極은 모든 自然現象, 人間의 生體 現象과 一生, 民族이나 國家의 歷史에 있어서도 速勳 — JIID협 週期가 있다는 嬰理!를 보 여 주고 있는 것이다. 太極은 萬事 萬物의 根源이자 歸納하는 바이기 때문에 이미 그 속에 이러한 偉大한 原理를 內包하고 있는 것이다.

0000

易經은 陰* - - 와 陽것 - 어느 것이든 세 효가 모여 한卦를 이룬다. 이처 럼 세 효로 된 것이 乾 梵 離 震 興 次 良 坤 이라는 八卦이고 이것을 'I、 成卦라, 한다. 그리고 이 八卦를 두개씩 모아 組合하게 되면 여섯 개의 갖으로써 이루어진卦가 都合 六十四卦가 된다. 이 六十四卦를 lj::fj戈卦라 한다.

八卦나 六十四卦의 배열이나 그것의 發生 根操, 意味 등은 뒤에서 다루게 되므로 우선 두고, 여기서는 大成卦인 六十四卦를 앞으로 보아 나갈 때 必要的 豫備 知識으로 서 各卦에서 共通되는 基礎 概念을 이야기하기로 한다.

⑥ 陰조와 陽것

우선 陰것과 陽것은 무엇을 象徵하고 있는가를 살펴 보자. 지금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太極의 陰陽 相對性 原理에 따라 相對되거나 相待하는 것을 각기 象徵하고 있 다. 이 표에서 열거한 것 이외에도 陰것과 陽것가 象徵하고 나타내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剛)1天日홀男혼쁘포브勳開呼+ 連續 陰 (柔) 地 月 夜 女 裏 退 虛 弱 靜 閉 吸 - 不連懷

,

易經總論 25卦를 配合卦 또는 全變卦라 한다. 그리고 어느 大成卦의 제일 아래의 짓와 맨 위의 짓를 除外하고 나머지 네개의 支를 가지고 밑에서부터 세개조를 下卦(內卦)로 삼고, 위로부터 세개 짓를 上卦(外卦)로 삼아 이루어지는卦를

「互卦」라고 한다. 이것도 또한 한卦의 意味를 보다 지',히 살펴 기 위해서 이루어 진다.

@~실;卜

陽것가 陰갓가 되고 陰조가 陽것가 되는 것.(全것가 變한 것.)

-- —

쿵-루

— --

水雷屯 火'

◎互卦

, '

初갓와 上조를 去頭截危하고 中間四支를 가지고 作卦하여 解釋하는 方法을 말한다.

上, 初는 極과 極이니 重要하지 않다. 모든 일은 中間조에서 事件이 일어난다.

三

4 -- 作卦方法은 3·4·5것로 -+ 坤J 地雷復이 互卦이다.

3 — — 2·3·4조로 -+ 震

2—

~

⑧ 本卦와 之卦

어떤 일을 당하여 올바른 判斷을 하기가 어려울 때, 사람들은 筑竹을 이용하여 占 을 친다. 이 때 처음 나온 大成卦를 本卦라 하고 그 本卦에서 變하는 것이 있어서 달라져 이루어지는 大成卦를 之卦라 한다.

24 易經總論

2) *와卦의 變化

⑧ 變易과 交易

易經의 64卦는 모두 陽것로서 構成되어 있는 覽天乾卦와 全部가 陰조로 이루어져

있는,(:~地坤)回 基本이다. 이 純陽의 乾卦와 純陰의 坤卦 가운데서 한 것로부터 여섯 것에 이르는 어떤기夏化가 일어나면 나머지 62卦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卦에서 어느 갓가 변하여 다LJ桂느뽕회~象응 「變易」이라 하고, 어떤卦와 다른卦가 서로 어느 조롭 맞바꾸면 새로운 두卦가 되는 現象을 「交易」이라한다.

⑧ 倒轉卦와 鎖綜卦

어떤 大成卦를 뒤집어 제인 아래에 있는 갓가 맨 위로 가고, 위에 있던 갓가 제일 아래로 가게 하여 이루어진卦를 倒轉卦라 부른다. 그리고 어떤 大成卦의 上卦를 下卦로 보내고 下卦는 上卦로 가게 하여 이루어 지는卦를 鉛綜卦라 부른다. 이것은 한

-..~ •. :.; :-"

卦가 지니고 있는 意味를 보다 종합적으로 안아 보고 검토하기 위하여 이루어 진다.

◎ 不tf!J轉卦

아무리 뒤집어도 같은 卦가 되는 것이다. 64卦 全體 가운데 丕堡륜卦~ 8卦 뿐이다. 上經 - 乾, 坤, 願 大過 次 離

下經 - 中 국~. ;J、適

.... •... W

.•..

3+ 6 = 9 老陽數

◎ 倒轉卦(아래 위가 뒤집힌 것.)

루 == 투- 르르

水雷屯 山水蒙

不倒轉卦 8卦J 36卦 倒轉卦 28卦

乾之策數다.

中正의 重要性

3) 九六과 位,

◎ 鉛綜卦(上下를 바꾼 것.)

下卦가 上卦로 되고 上卦가 下卦로 간 것.

_ 上六正 _ 六五不正(中) _ 六四正

_ 六三不正 _ 六二中正

_ 初六不正

二

上九 不正 九五 中正 九四 不正 九三 正

九二 不正(中) 初九 正

⑥ 各조의 名稱과 九六

上位(陰位) -.-.

麟麟二二二

三位 (陽位) ---:-----...

盆麟二二二

~, --: = =

트X트

雷水解

水雷屯

R'I E A-'l:l .. <>l -,4:1 ..

26 易經總論

개의 효로써 構成되어 있다. 이 짓는 맨 아래로부터 헤아리는데 陽조가 제일 아래에 오면 初九라 한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서 九二, 九三, 九四, 九五라 하고 제일 위 는 上九라 한다. 또한 陰조의 경우는 아래로부터 初六, 六二, 六三, 六四, 六五, 上 六이라 부른다. 여기서 九와 六이라는 숫자는 1・2・3・4・5라는 數를 易에서 先天數 라 하고 이 가운데 奇數(偶數)인 1・3・5 를 합치면 9가 되고, 偶數(陰數)인 2・4 를 합하면 六이 되므로 여기서 나온 것이라 보고 있다.

'''

◎ 先天數 (D

2~

⑩ 參天兩Jt!!

-----:-----_一一-----

lt3t5 = 9 陽數의 合計 陽짓는 九 2+4 = 6 陰數의 合計 陰짓는 六

◎ 初 : 初九, 初六이라고 한 것은 宇宙森羅茂象의 始初의 뜻이 있고 또한 限定하지 않기 위하여 初라고 하였다.

上 : 上九, 上六이라고 한 것은 萬有의 理致가 하나에서 차차 쌓아 가지만 限定을 지우지 않기 위하여 上으로 하였다.

萬有는 變化無常하여 限定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⑩ 位가 갖는 意味

各卦의 여섯개 조는 단순히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밑에서부터 위로 潮進的으로 變化하고 發展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各갖는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며 동시에 밑에서부터 社會 組織의 位라든가 段階를 나타내는 것이다. 지금 六것의 各位가 갖는 職位, 地位 등을 例示해 보면 아래 표와 같다.

位	卦	家族	國 家(I)		國 家(2),	會社	연령	
			----- ---					
上位		祖父	탐師		고문	W	會長	60
五位		戶主 (父)	君主		大統領(總理)		社長	50
四位		兄	宰相		長官		重役	40
三位		弟	Jl.'IJ 大夫		局長		部長	30
二位		主婦	王妃.		主任,課長		主任,課	20

位		(母)				長	
初位		孫子	庶民 末端			平社員	10
		I	느 → —				

㉔ 中正의 重要性 .

易經에서는 中과 正을 대단히 重要視한다. 中이라는 것은 民에서 두 번째의 位와 易經總論 27 한다. 한편 여섯개의 位는 民에서부터 1・3・5의 奇數(陽數)의 位에 陽조가 오면 이를 正이라 하고, 陰조가 오면 不正이라 한다. 또한 2・4・6의 偶數(陰數)의 位에 陰조가 오면 正, 陽조가 오면 不正이라 한다. 따라서 陽의 位에 陽조 陰의 位에 陰조가 오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을 때는 좋지 않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民에서부터 二支 位에 陰조 즉 六二가 오면 이것을 「柔Jg 中正」이라 하고, 다섯 번째 位에 陽조 즉 九五가 오면 이를 「剛健中正」이라 한다. 이 둘은 각기 中庸의 德을 갖추고 있으면서 올바른 位에 있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하고 吉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易에 서는 不正 보다는 正을, 正 보다는 中을, 中 보다는 中正을 尊重한다.

4) 正應 相比와 吉凶悔吝

㉔ 正應과 不應

三 [

三三

——

想應

才正

二 r _ . . . i' : -

모두 相應

、'、'

어떤 卦의 六것에는 應 比 承 乘이라는 관계를 볼 수 있다. 먼저 應이라는 것은 初 位와 四* 二位와 五位 三位와 六位가 서로 對應하고 있음을 말하는 데, 이때 짝이 陰조와 陽조로 되어 있으면 IF應이라 하고, 짝이 陽조 끼리 또는 陰조 끼리로 되어 있으면 不應, 敵應이라 한다.

正應은 陰과 陽이 서로 도우는 關係이기 때문에 바람직하고, 不應은 서로가 反廢하는 關係가 된다. (各其 正의 位에 있는 陰조와 陽조가 짝을 이루면 이를 正應이라 하고 不正의 位에 있는 陰陽의 짝일 때는 相應이라 부르는 수도 있다.) 正應 가운데서도 下卦의 六二와 上卦의 九五가 짝을 이루는 것은 柔順中正과 剛健中正의 和合이기 때

는 것은 親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웃하는 두 位가 모두 陽 또는 陰일 때는 相比의 關係가 成立되지 않는다. 應이나 比가 다같이 서로 돕는 것이지만 相比 보

다 相應, 正應이 훨씬 강한 관계이다. 그리고 이웃하는 두 조의 關係에서 陰조각 4易조 안팎 있

0 며 · 이 저 옥 더lr, ol 라 하 71 -. 바테 E 111,--?S 기 ffl.X O] nl! 01 0

때 ,- r.= 치 시 ...-, _ ,

W~y

티 ,%,lv)~ 1-W'W, 11- .

#屈

l ...

0

~ ... -< ~JJ-V ® •. ~~휴묘. ~ W-v

易經의 卦餘 화辭에는 /f凶梅各 성의 표현이 많이 나온다

古이라는 것은 幸運 幸福 善, 得이 있는 狀況을 만하고, 凶이라는 것은 災難이나 禍를 만나고 惡 失이 있는 狀況을 만한다. 0 느 어떤 인의 價{LO.'P.IJ!Wi에 관한 만쯤인

데따 뻘면쓰쇼辭尸투에 나오고 <훈 j; 盧,U, 這엔요곳에 보인다. 梅는 마음 속에 서 뉘우치고 恨이 되는 것을 만한다~굼f-'?l색합-i- 나타내며 움직임

에 곤궁함이 있음운 뜻한다.

그런데 梅와 :??r은吉과 凶의 中riai에 있?며, 梅는 凶보다> ~-0로 향하는 뜻이 {:_

격 ; 6 W :--'

1 概念 ~1~ 0

1) 體用一源

< 悼 C 1 .n -1'.'1:--1;, f

~

--- ~

易經에는 體와 用이라는 概念이 있다. 이 세상의 모든 現象에는 基本이 되는 틀 이 있고, 그 基本의 活用이 있다는 것을, 간으면서도 다른 것으로 易經에서는 概念 짓고 있는 것이 다. 이 體와 用에 대해서 宋의 程伊川 은 易經의 序文인 「易 序」에서 “體用一源, 顯微*, 間”이라 하였다. 體와 用이라는 것은 하나의 源泉 이나 나타남이 微微하여 틈새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1 體라 하면(陰陽분 用~1 된다. 우리 몸이 體라고 하면 마음은 用이 된다. 後 述하 게 될 ey• 體라면전는 用이 된다 그리고 河!ffi의 數인JO은 體가 되고 晝 晝 數 9 는 用이 ,.--다 즉 數에서 1로부터 10까지는 基本的인 것이지만 신체에 있어서는 1에서 9 까지가 주로 活用되는 것이다. 이와 같아 體와 用은 서로 떼어 진 수 없으면서 나누어 생 각할 수도 있는 關係라 할 수 있다.

2) 天地人과 天人地 .

易經에서는 天地人을 三才라 한다. 「三才」라는 것은, 宇宙 속에 地球가 있고, 地球 위에서 사람이 살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가지 요소, 바탕을 뜻 한다. 小成卦의 세 짓를 위에서 부터 天地人으로 배정하면 體가 되고, 天스뽕록 배정할 때 는 用이 된다. 한편 大成卦의 여섯 짓를 위로부터 두개씩 갈라 天地人으로 보면 體가 된 다. 그러나 여섯 짓를 天人地로 나누면 用이 된다.

이야 가이 「=Ftfb人 , 옥 體라 하누 저우. 하늘이 먼저 생기고 다음으로 땅이 생기고 그

房府 ~g"grt4`m

W

易經總論 29

西洋은 16世紀부터 이른바 近代化를 展開하였다. 近代化라는 것은 經濟的인 資本主義, 政治的인 民主主義를 成立시키고, 科學과 技術을 發達시켜 現代文明을 建設한 歷史的 過程 을 말한다. 그런데 먼저 近代化를 成就한 西洋은 그 經濟力과 軍事力을 가지고 東洋에 侵略해 왔다. 이때 中國에서는 「申疆西用」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近代化를 推進하려 하였 다. 말하자면 中國의 傳統 文化를 體로 삼고 西洋의 近代文明을 用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 다.

L 河圖와 相生原理

1) 河圖의 意味 河圖는 易經의 起源이며 出發点이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약::Q년L~~中國의 水 (지금의 黃河) 에 한 龍馬가 나타 났는데 그 등에 무엇인가를 象 - 는 그림이 있었다고 하는 傳說에서 由來한다. 그 당시에는 伏羲 (부희)씨가 天下를 다스리고 있었다 하며, 龍馬는

`、 .. --、 .. - - --、 ~,, .1- - ,, , r- ,,,, ,h, , ,,,, -T.

~1 ,,,, , ,

/,1 成立되는 것이다. 따라서

-----一體 --- /

CD 2 0

-, , _j:

:) ?1v

i t» t~ J「

~{/B_] 간~-;;Q)~

多1、I~ . y

~

}

- I

—

30 易經總論

龍馬의 등에서 발견되었다-~:- -?니와 그림에는 限과 陰을 나타내:: 회고 검은_i:년 55개가 배열되어 있었다. 이것을 보고 伏羲씨가 거기서 陰陽 數, 五行, 方輿 등의 意味한 이잔어 냈다고 한다. 그러나 傳說의 羽僞와는 관계 없이 이 河圖가 갖는 여러가지 意味는 易經의 가장 중요한 思想的 基調이미 東方思想의 核心이라 할 수 있다. 아마도 오랜 歲f!에 걸쳐 서 훌륭한 聖人, 뛰어난 先人들이 깨닫고 생각한 思想들이 體系化되어 오ti의 河圖를 이룬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一 二 三 四 五

.....J 陰陽이 配合되어 있음

六 七 八 九 十

I I I I I

水火木金土 北南東西中 央

土는 中央에 位霞하여 水火木金에게 全部 影響을 준다.

隣陰 --

o•

金(西)

4.9 ••••

•

•

51~

•

•

2·7

••

火(南)

•

•

•

•

•

•

。 3·8

~ iiiJ圖의 說明

•

•

•

••••

•

木(東)

◦

1 · 6

•••• 水 (北)

•

•

9 10 = 55

.....

二終

한편 易에서 는 홀~ (奇數, 陽數) 를 天數라 하고 1 호작수) (偶數, 陰數) 는 地數라고 한다. 그 러므로 生數의 1 · 3 · 5를 參天, 2

. 4를 兩地 라하여 先天數를 W 「參天兩地u라 부른다. 그

리고 1에서 10까지의 河圖數 가운데서 1과 2를W, 3~ 5와 6을 二, 9와 10을 二終이라 한 다.

8

7

ㄴ

二中

4

3

1 2

二始

河圖에는 첫째柱 陰陽의 思想이 있다. 이 세상의 모든 現象에는 陰과 陽의 相對性 또는

.. -- ' -

相待性的 原理가 있고, 이로써 萬有의 理致나 造化를 파악하려는 것이 易의 思想이다; 둘 I

제와 數에 대한 思想이 있다. I에서 10까지의 基數-와 序數 그리고 易學的인 活用的 根源이 있는 것이다. 제제되 五行에 있어서의 相生思想이 있다. 水 · 木 ·

火 · 土 · 金이라는 五行의 相生하는 原理를 !이여 주.는 것이다. 네째로 方位에과한 思想이 있다. 東西南北 四方의 概念을 河圖가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 .. 'I' ... ,

.. . .

3) 五行 相生의 原理

河li,il에다 五行을 配定하여 1·6은 水, 3·8은 木, 2·7은 火, 4·9는 金, 5·10은 土로 하였다. 이러한 五行은 相生의 關係를 나타 내고 있다.

*선:±

A#--v

__ j_.Jl--A

,J.,fl- -I-

-rl-l:: IV

2) 數의 根源

河圖에는 1, 2·3·4·5·6·7·8·9·10이라는 열개의 數字가 있다. 이 열개의 數字는 基數이면서 序數로서 數의 根源이라 할 수 있다. 이 10까지의 數를 易에서는 둘로 나누어

1에서 5까지를 坐塾 先天~Ei하고, 6에서 10까지를 成數 送츠數되츠향다. 1·2·

3·4·5 a?.1-l-11ttt;i:-1 하 거으 l!>l 다서7J1Q) 11v가 닌다1t : 本Aq~l 數이고. 여기서 부터 6에서 10까지

꾸易經總論

地球上의 모든 生命體는 물이 있기 때문에 發生하였고 또한 삼아 간 수 있다. 그러므로

1이 水로 되는 것이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물은 宇宙로부터 地球에 왔다. 따라서 1이 水 라는 것은 처음으로 생긴 물이라 한 수 있고, 6은 물의 變化 즉 비(河)II 우물 얼음 등 우 리가 現實적으로 利用하는 물이라고도 한다.

水生木은 물에서 나무나 풀이 생기고 물이 나무를 살린다는 뜻인데, 여기At *음 모든 生命體를 象徵한다고 볼 수가 있다. 木牛火는 나무에서 불이 생긴다는 것인데, 이는 나무 에 불이 붙는다는 것 뿐 아니라, 石炭이나 :£1]11도 모두 먼 옛날

에 나뭇가 - 땅 속에 매몰되 어 造成되었음을 나타 내고 있다. 火生土는 정에서 흙이 생긴다는 것으로, 나무가 청·타고 나면 재가 곧i回i=!!다는 뜻 뿐 아니라, 地球 지재가 불덩어리였던 것이 식어서 形成되었 음을 의미한다. 土生金은 흙속에서 돌이나 金屬이 나온다는 것으로, 역시 地球라는 커다란 土가 金屬을 產出하는 것을 意味한다고 볼 수 있다. 鍤金生7.1(는 金li5이 冷却되면 거기에 물

W-—

이 서린다는 現象으로 설명되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안서 본 것처럼 地球上의 물은 宇宙

로부터의 隕石이 가져 왔다는 것이 說得力이 있다. LJ)문~

2. 伏羲八卦와 次序圖

1) 三才之道와 C義A_卦 (先天八卦)

伏羲씨는 河圖를 보고 거기서 본받아 처음으로 陰-- , 陽 - 이라는 符號를 생각해 내고, 天地人_이라는 三才之道에 의하여 八卦를 그렸다고 한다. 이 陽이나 陰의 符號를 天地人이라는 가장 重要的 세가지 요소를 본받아 세개씩 組合하여, 伏羲씨가 처음으로 八卦를 그렸다고 한다. 이것을(伏羲八卦, 또는 先天八卦라고 한다. 이는 後述하는 文王八卦, 後天八卦와 對比되는 개념이다.

		先天	I	後天		
			I			
小-			— 1_			- -3線
			I			
成-			— 1_			- -2線
			I			
卦			—, —			- -1線
乾	兌; 離	震	I	箕	次	良 坤
			I			
			I			

1線에서 乾 ~ 震까지는 陽, 箕 ~ 坤까지는 陰으로 되어 있다. 2線에서 乾ft는 陽, 離震은 陰, 箕次은 陽 長坤은 陰이다.

3線에서 乾離異良은 陽,, ft震次坤은 陰이다.

이 伏羲八卦는 天~旦~理返환 窮究 하여 取象한 것으로 ~堤외 法JIII이라 말해진다. 우선 順序에서 1에서 4까지 오다 가 5에서 8까지는 方向이 바뀌어진다. 이것은 바로 太區의 原理를 나타내고 있다.

예컨데 人間生活;에 카~장 커다란 영향을 미 치는 春夏秋冬 四季節의 循環과 낮과 밤이 바뀌고 도는 일 자체가 陰의 氣運과 陽의 氣運이 서로 맞물려 바뀌고 도는 現象인 것 이다.

2) 伏羲八卦의 次序圖

.,~ f. ㉔ 八卦次序의 形成過程

김나 . 2-t'.-~

伏羲씨가 創製했다는 先天 八卦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이 伏羲 八卦가 이루어진 과정을 說明하는 그림이 次序圖이다.

太極으로부터 陰과 陽이라는 I(兩~가

.. ,,, .. ,,, ,,,..

....

생기고, 여기서 「四象」 이 나오며, 다시

. ' .

「八一만4가 형성되었다. 그 과정은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아래로부터 차례로

陰과 陽이 規則的으로 變化하면서 더해져서 이루어 진다.

易經總論 33

一乾

/~ - -

/,~7:~;,

전1:1~ *:1:갑

"~~": •. ~,, + 4;' - - '/rj.

-- 令

\$+ W.I

伏羲八卦(先天八卦)

' 伏羲八卦(99년八卦)

八	七	六	五	四	三	二	一
地	山	水	風	雷	火	澤	天
坤	艮	坎	巽	震	離	兌	乾
坤	艮	坎	巽	震	離	兌	乾
三	上	中	絕	下	曲		
絕	連	連	連	中			

⑥ 一生二法과 四象

太極에서 陰陽이 나오는 것을 「一生二法」 이라 한다. 이 陰陽은 表裏와 같아서 그 자체가 太極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陰陽에서 四象이 나오는 것을 「二生四法」 이라 한다. 陽之陽은 太陽(老陽), 陰之陰은 太陰(老陰)이고, 少陽과 少陰은 각기 陰陽이 配合되어 있다. 이 二生四法에도 太極과 一生二法이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6	. 7	. 8	9	-數
			— —	用
			—	體
太陰	少陽	少陰	太陽	
體	體	~	體	

陰	陰		隔	
---	---	--	---	--

여易經總論

四象을 사람에게 適用하이 體質을 분류하고 그 體質에 따른 疾病의 珍斷이나 治療에 活用하는 것이 (「四象醫論」, 1 이다. 이 四象醫學은 우리나라의 李濟馬先生이 創始한 것으로 韓醫學의 자랑즈려운 유산이며, 오늘날 그 새로운 研究와 珍療體系 開發이

活潑하게 進展되고 있다.

⑧ 八卦의 形成

四象으로부터 다시 한 段附 읍-라 가면 八卦가 形成된다. 이것을 「四生八法」이라

한다. 이와 간이 太極으로부터 二法, 二生四法, 四生八法으로 나아 가는 것은 進, 이며 또한 沿加止서리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八에서 四, 四에서 二, 二에서 一로 歸納해가는 것을 『歸法』이라 하는데, 이것은 儒敎에서의 觀工夫, 敬工夫라든가 佛敎에서의 禪工夫와 간이 精神을 統一하는 경우에 중요한 方法論

이 된다.

e 伏羲八卦 次序圖

8 7 6

5 4 3

2 1 合數 = 36 卦象 36數 (

隔 = 1

形象

陰 = 2

八卦(四生八法)

三

四象(二生四法)

兩儀(陰限) (一生二法)) ti

b, ~

少陰

太陽

I

陽

1=0有=無

太極

, .

無 極(周子)

3) 八卦의 活用과 六十四卦

順序	1	2	3	4	5	6	7	8
八 卦.	-	-	-	-	-	..	- -	- -
		- - - -	• 틀, ••• •					
卦名	乾	兌	離	震	巽	坎	艮	坤
街'卜 德)	健	說	麗	動	入	路	止	順
家族	父	少女	中 女	長男 I 長女	中男	少男	母	
身體	首	口	目	足	股	耳	手	腹

易經總論 35

八卦는 易經의 基本要素로시 여러가지로 活用된다. 대표적인 것 몇가지를 들어 보 면 위의 도표와 같다 이상에서 8卦는 小成卦이고 이것을 다시 두개씩 組合하면 大成卦인 六十四卦가 이루어 진다. 二進法 또는 倍加法은 太極에서 始發하여 계속 進 展해 갈 수가 있다.

오늘날 컴퓨터의 半畚H현가 發展해나가기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狀況은 잘 알 수가 있다. 이제 伏羲八卦를 연장한 64卦의 次序를 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伏羲64卦 次序~)

--
-

, ... -I: A (

" 易經絡論

3. 先天八卦의 方位圖

1) 先天八卦의 方位와 太極旗

伏羲八卦 즉 先天八卦는 天地 自然의 運行은 그대로 나타 내는 것이므로 東西南

北의 方 位를 표시하고 있는 데 이것을 「刀血圓」 라 한다. 이 方位!il : 1는 동
시에 春夏所冬의 四季節 이 循環하는 現象을 표시하기도 한다.

(先天八卦 方位圖)

南1

夏至

6西血 _I

/z |

`다,'/

W與

=乾 [<] 坤__一 免震 W ` ` ` 離

|

多

2/ ' 4 I _

—

3東固

立夏

2

順 免

數

春分 3 離

北8

後天 立秋

撰5

逆數

次6 秋分 長

7

立冬

如제f- 1 乾天은 8 坤地와 마주 보고 있으면서(Jfi과 北을 각기 나타 낸다. 뜯제후
3 離 火는겹 次1k와 마주 보는데 이것은 東과 西류 각각 표시한다. 이 1奧西南北
은 易에서 「四 正方」이라 한다. 세째로 2 免澤과 7 良山훈 각기 東南方과 西北
力 組 4 震雷와 5 箕風은 zt2J- 東北方과 西南方을 표시하여 『四間方j 윤 이루
고- 있다.

우리나라의 太極旗는 한가운데에 太極이 있고, 그 太極에는 陰隔이 相對하고 있
다. 그리 고 四方에 乾과 坤이 마주 보고, 次과 離가 또한 서로 맞보고 있다. 이
것은 곧 先天八卦 가운데서 守正方인 乾坤次離tl 卦만 표시하고 四間方에 해당하
는 免良震,~의 卦는 省略한 것이다 우리의 太極旗는\겨宇宙 自然의 가장 根本的
인 理致를 나타내고 있다 太極의 萬物 根源의 原理 陰陽相對性的의 原理 波動循

JJ :!의 原理가 들어 있고, 乾坤으로 天地를 次離로 水火의 造化 및 日月의 作用
을 나타 내고 있는 것이다.

易經總論 37 게 찬양한 바 있다. 오늘날 西歐社會에서는 東fr思想에 관심이 높아지고 그 가운데서도 易經(周易)에 관한 研究가 대단히 活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美國의 많은 大學에서는 易經의 講座를 개설하고 수많은 學生들이 受講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太極旗를 國旗로 내걸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活潑하게 研究를 進展시켜 이 學問을 主導해 나 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타니澤외(國旗을 보면성t,) 1 여러나라에서는 閨을 많이 쓰고, 西洋諸國은-그 II.~三 陰 을 많이 使用하든 傾向을 볼 수 있다. 韓國은그보返旗:c .. _ W易을 모두 使用하고 있으나 日本 의 日章旗, 中華民國의 白日青天旗 등이 '東洋엔 있는 반면 西洋에서는 美國의 별 터키의 달 등 주로 번과 달을 깎이 使用하고 있는 것이다.

2) 先天八卦와 四季의 循環

先天八卦는 方位를 나타 내는 동시에 일년 四季節의 循環을 나타 낸다. 乾은 夏至를 坤 은 冬至 그리고 離는 春分, :!?,:은 秋分이 된다. 陰이라 할 수 있는 밤의 길이가 가장 긴것 이 冬至인데, 이때부터 해가 길어져 立春인 震, 立夏 3t를 거쳐, 陽인 낮원:길이가 제일 긴 夏至로 온다. 그리고는 다시 밤이 길어져 立秋異, 立冬 良을 거쳐 다시 冬至로 오는 循環이 反復되는 것이다.

(先天八卦는 각기 마주 보고· 있는一卦가 陰陽의 것을 서로 말리학3)있다. 乾卦는 세 조 모두가 陽인데, 마주 보는 坤卦는 모두가 陰것인 것이다. 離卦는 1•3 *가 陽, 두번째 깃 가 陰인데, 상대하는 次卦는 1•3 *가 陰, 두번째 깃가 陽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나머지 서로 마주하는 卦들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先天八卦의 配列은 WJ ; : 地自!:90의] 理致함 그대로 나타 내고~다.

(1) 乾괘」랫의 配列은 하늘 天이 위에 있고,--~ ti!!는 맨 아래에 있다. 이것을 (天~립~라 한다. (2) 良과 免의 相對함은 디U澤通氣」 라 한다. (3) 震과 興이 마주하고 있음은 「雷風相薄」 이 라 한다 (4) 離와 次的 관계는 _Y7j(썬-;r-t&!fl(불상식) 」 이라 부른다(說卦傳 第3章). 특히 離卦는 日 (해)을 次卦는 月 (달)을 象徵하마 동-.l에 물과 불을 의미한다. 이 물과 불은 서로 떨어 질 수 없는 관계를 지니면서 무궁한 造化를 보여 후리 人間生活에 있어 대단히 重要한 意味를 갖는다.

3) 六十四卦의 方圖, 圓圖

~ ~ - _., , ~, . . , , , r- -1l ul '-D A .• : ,l ..•... : ... L .• Lrm-f,,L .. ,1 W .--1
••• :i o ml All.-- 디 •• =--Ji .• 시 -i=,l,J .• (')J ,,,, _ ..• , ,

易經總論 39 내는 것으로 太陽의 ��끄전 \ 一年 四季의 氣候 뒷化, 하루의 밤과 _±인 바뀌는 일 등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方位에 있어서는 八卦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gi :卦는 四음, 坤반노~ 을 나타내고, 離卦는 東, 次卦는 西를 각기

나타내고 있다. 이것을 五行의 地支로 보면 乾 은 午, 坤은 子, 艮은 卯, 次은 酉 가운데에 있다.

모 문로 展開한 것은 「方圖」라 한다. 六十四卦의 圓이나 方에 있어서도 基本 原理는 八卦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 즉 太極의 陰陽이 理로 맞물려/돌아가는 理致에 따르는 것이다.

38 易經總論

lilJ [r/

L+.J

rW ? -`V

,

llf

!1; * ;l

후늑;; /,, 측2:~::~:Z-

.. Jr

: : : : ~~~-"/' ~~

, - , '-! 'V

-~'-~ ' , ~' '

' -'II

'i," <'

' '

It 1' •.

~-

:; ,~, .~

. - - - -

득늑늑늑 ` [WW•](#)

:=====

'''

= = = ' ' 'W"

:I ~ ,: " ,,:--.,

근클 三륵 클글 루 W~S~.

,; ,,, C'

='.드三늑뚜—

[WW'.W](#)

II 司= =른 국= =;;三 .. ~ ~~~ ~if ~톤 [WW'...W](#) n

~~뜯=

WW ...

"" ~

- - - -
 -
 Ai ii< 1111;l 극= ~ =c:= _!l_ 습 ~ ~ ~들 J);;I) a; I'S
 컵— -;- -,.- 국,=
 = = =- = '
 ,!, '///: II
 ="'= ='=

 ..

 :c = - - -
 . - - ..
 三=c= .
 " {;
 := = =·cc
 ---- ==,;=-~ → .. =
 - -
 , '•, ' . '
 -:-. '/', '---~~多?
 'O', '/', - 0 -
 ~- . ~', - - - - =- = ~ = = == 三-: ~ ' /,
 -; , ..
 .•.)!-~--~::-----/-: .. - ~
 " .-:: .. ;근:효~~ .. -- 1(다
 ,J, ;:,
 、 ,H
 " " I~

(先天64卦의 次序圓圖)

(先天64卦 方圓圖)

方圖는 땅에 뽀한 일을 象徵하고 있다. 方位에 있어서서 혼은 西北에서 시작되고,
 봐요 .. Ji ' 南에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陽은 北쪽에 있고, 陰은 南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 方 圖에 겠r~서는 乾, 兌, 離 震, 選 次 良, 坤의 大成卦가 西北
 으로부터 東南으로 이어져 나아가고 있어 經을 이루고 있다. 하편 乾.tEfl이 相交
 하여 이루어지는 否와 * 兌와 良의

相交인 損과 咸 離와 ;lk의 相交인 概濟 未濟 震과 異의 相交인 益 恒--:등은 東
 北으로부터 西南으로—配列되어 緯를 이루고 있다.

六十四卦의 方位에 있어서의 (特徵은 J다음과 같다.

.. - ----~

첫째戶 陰陽의_昇降에 規往性이 있다. 즉 --.陽이 復卦에서 시작하여 점차 成長, 上昇하여

乾卦에서 끝난다. 그리고 一陰은 姤卦에서 시작하여 陰이 역시 차츰 자라서 (陽은 줄어들고 下降) 坤卦에서 끝난다.

둘째휴 각기 陰陽-의 갖가 반대·로 되어 있는 卦가 짝을 이루고 있다. 六十四卦는 각기 32 개의 卦로 되어 있는 두개의 무리로 나눌 수 있고, 이 두개의 무리는 서로 陰陽에 있어서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例示하면 乾고L坤, f~ _tis, 願와 大過, 同人과 師 등은 각기 陰조와 陽조가 相反되어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麟닌 하늘의 運行을 象徵한다. 乾天이 높은데 있고 坤地는 낮은데 있으며 次水와 離火

. -----. --

'-.' 七tOl II~F"i르 •• 1크:- , Olrl 머마다 i!i<.-ttho_-~'의 시크.,, .. , ~-'- '

廷;l.*l. A Olrl. 시시

心易經總論

<5> 洛書와 後天八卦

L 洛書와 相克의 原理 1) 洛書의 意味

/

洛書는 ' 易經에 있어 서 河l:ii와 디 붕어 가장 根源的인 基礎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약 4000 년 전어(夏i)+ ~와쵸J7)((黃inJ의 支流)에 나타난 社~(신성스러운 거북)의 등에서 重要的 象徵으로 보이는 무늬를 발견했야는 傳說에서 由來된다. 당시 舜 임금님의 命을 받 아 禹씨가 犯艦(범람)히는 홍수의 被害를 막기 위하여 9 년 동안 治山 治7)(를 하던 중 이 러한 거북을 발견했다고 한다. 堯(요), 舜의 시대는 理想的인 聖人 政治가 이루어 졌다고 하며, 禹씨는 후에 舜임균=1__王統을 이어 받았다. 이 禹王이 하늘이 내린 洛書의 理致를 깨달아 後世에 진했다는 것이다.

e 洛書

洛書에는 陰陽을 나타내는 45개의 点이 배 열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陰隣' 數, 尹行, 方位_등의 意味를 찾았다고 한다. 그러 나 河!;i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洛書에 관한 여 러가지 重要的 思想的 基調도 오랜 歲月 이 흐르는 가운데 많은 先人들이 깨우친 바가, 集積되고 體系化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여

" ----

겨진다.

河圖의 思想을 이어 받으면서, 洛習에 있어서는 첫째로 陰陽 #撲~原理. 또는 相待性 의 原理는 그대로 들어 있다- ~지:치改理의 思싶더 있어서는 1에서 9까지만 있어 河圖의

1 - 10 數와 다르며, 특히 그 數의 配列에 있어서 魔方陣(마방진) 이 되어 活思
珪이 높다.

..- - - -

센째혹 五行에 있어서는 祖克원』巳L판 가져, 河!ffi의 相生原理와 다르다,W 네째
로W東西南

北의 方ijj'L, 春夏秋冬의 四季의 循環을 보여 준다.

易經總論 41

2) 洛書에서의 數理

V v'

1 2 3 4 년) 6 7 8 9 後天의 始初가 六이 고 마지 막 數가

- ---- -- 九이다. 故로 後天의 始終을 取象

先天 皇極數 後天 하여 六과 九로 使用하였다.

洛書에 있어서는 數가 단순히 1에서 9까지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配列이 특
이하다.

한가운데에 5가 들어 있고 둘레의 여덟 곳에 나머지 數가 흩어져 있다. 그런데 1
• 3 • 7 • 9 는 四正方에 있고, 2 • 4 • 6 • 8은 四間方에 있으며, 5가 가운데 자리한
다. 5가 나머 지 數를 統率하는 모습이므로@흠 皇極數라고 한다. 그 뿐만 아니라
洛書의 數 配列은요료_포괄화

•"'"'"' _ , ,

여 縱橫 斜線 어느 것을 合計하여도_프포」~도뜨J:: 1 • 5 • 9, 2 • 5 • 8, 2 • 7 • 6,
3 • 5 •

7, 4 • 3 • 8, 4 • 5 • 6 등의 合計는 모두가 15인 것이다.

헨필햇1 본 生壁 1 • 2 • 3 • 4 • 5의 合計도 15 l고, 四훈원~인

老尸그陰느전> 묘~근된다. 그러므로 : 각 數列의 合計가 모두 15로 되는 達 易에
서는

宮 라 하여 대단히 重要하게 여겼던 것이다. (數學에서는

이러한 數의 배열을 方陣, 魔方陣이라 하고 이 洛書의 경우 말고도 많이 있다)

그리고 洛書의 數에서 5를 基準으로 하여 1 • 2 • 3 • 4를 先天數, 6 • 7 • 8 • 9를
後天數라 한다.

깊 (S

(洛書의 數理)

9

2

洛書의 5를 基準으로 할때 1과 9, 2와 8, 3과 7, 4와 6의 合計가 모두 10이 된다.
따라 서 洛書의 數理 속에 河I11의 數 10이 들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洛書의
1에서 9까지의 數를 모두 合計하면 45가 된다. 河圖의 數 I에서 10까지의 合計
는 55였다. 여기서 先天數 55와 後天數 45를 合計하면 100이 된다. 두 數를 舍
한 이 100을 다시 둘로 나누면」 보i .. 된 다. 이(5o) 易에서는 大衍數(대연수)라

하고, 重要視한다. 大衍數는 河圖數 55 보다는 5

_, -, J --, .'W속- Ac .• _, rl W ... C--.1 nl.rl 따::, l,J .tr.=t>l tll,t,l ~그::t>l 를
1(,2 -, ;:r 길1 코W ... tll,::,l

42 易經總論

3) 五行 相克의 原理

五行을 洛書에서는 相克의 관계로 배정되고 있다. 1•6은 水, 2•7은 火, 4•9는 金, 3

•8은 木, 5는 土로 하였는데, 이것은 차례로 서로 克하는 것이다.

e 洛書의 相克原理

賜方

7)

火

W水 金广-8

4

3W

/I'木

水克火 火克金 金克木 木克土 土克水

-- .'---" - •... .., -

陰方

이 世上의 모든 現象을 五行으로 파악하는 경우, 相生의 原理만 있는 것이 아니라 同時 에 相克의 原理도 作用하고 있음을 부인한 수 없다.

여기서 克한다는 것은 반드시 나쁜 意味로 解釋해서는 안된다. 發生이나 生育, 成長에 있어서는 相生의 原理가 重要한 作用을 하지만, 人間 生活에 必要한 <년活用>은 相克의 原理에 의한 作用이 많은 것이다. 水克火는 물로써 불을 끈다는 것인데, 地球가 바다에 의하여 식 었기 때문에 人間을 비롯한 生命體가 생겨 남 수 있었다. 따라서 물이 불을 제압~ 뜻 이 있다. 물과 불은 서로 떨어 진 수 없는 關係를 지니는데, 例를 들면 모든~食에는 만 드시 水分이 함유되어 있고 이 飲食을 불에 익혀서 우리가 먹고 있는 理致와 같다.

次克金은 불로써 金屬을 제압하는 것인데, 人間은 靑銅器 時代, 鐵器 時代 등을 거쳐 오 면사울을 가지고 金屬을 다루어 生活 用具, 武器, 機械, 器具, 裝飾品 등을 만들어 왔다. 金克木은 金屬으로써 나무를 제압하는 것으로, 오랜 人類의 歷史에서 木材의 利用은 모두

이 原理에 의한 것이다. ~3;다:fr 나무로써 흥을 제압하는 것인데, 산에'1f:무를 심어즈t 沙 . 沈(사태)가 인어 나지 않는 것과 같다. 1克1jc)는 흙이 물을_E.스리 ±-것으로, 강물이나 바 닥을 쌓아서 제어하는 것과 같다.

易經總論 43 .

1) 後天八卦의 配列

洛書의 數理와 五行의 配列에 따라 八卦를 그린 것을 「文王八卦」 또는 「後天八卦」라 한다. 洛書를 발진하고 거기서 깊은 理致를 깨닫은 사람은 禹준적치만, 洛書를 군만아서 伏羲八卦와는 다른 새로운 八卦효創案함 사람은 文王이라 때의 그또L이기 때문에 이것을 文王八卦~ 그리고 伏羲八卦를 先天八卦라 부르고: 後天八卦는 後天八卦라고 하는 것

은, 義八卦 1-濕體가 되고 基本이라 한다면, 萊王八卦 用이 되고 應用이나 活用이 널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e 後天八卦 (文王八卦)

長女

南

離 中

루 -!7: ,,' 坤 母

,,. 陰

日 2' 方

5

—111:免西娑

陽方

先天八卦는 陰陽이 變化하고 消長하는 天道의 基本 原理를 나타 내고 있다. 이것은 太極 으로부터 陰陽, 四象 八卦로 萬有가 生成, 發展해 가는 原理이고 體가 되는 것이다. 그런 데 後天八卦는 萬有의 움직임이 인어 나는 가운데 陰陽이 서로 作用하고 造化를 이루며 五行이 生克하여 ft.成하는 原理이고 用이 되는 것이다. 先天八卦가 先天的인 天道의 運行이 나 自然의 造化라 한다면, 後天八卦는 後天的인 人間과 그 生活에 관한 理致나 秩序라 할 수 있다.

後~卦에 있어서의 八卦가 갖는 卦名이나 卦것의 形象은 그대로 이면서 그

것의 順序 配列0 달라져 있다 I Ji:, 2 坤, 3 震 4 箕, (5 中), 6 乾, 7 ~.·s 良, 9 離 라는 순서로 配列되어 있는데 5 中 은 順序는 있으나 卦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配列의

브經總達

2) 後天八卦의 方位와 男性, 女性

後天八卦의 方位는 1 次이 北方은 9 離가 南方은 나타 내고 있다. 그리고 3 震이 東方, 7 1t가 西方으로 配定되어 있다. 良, 箕 坤, 乾은 가가 間方에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을 五行으로 보면 北 次이 水이고, 南 離는 火로서 각각 하나 씩이지만, 나머지 卦는 두개씩

配定되어 있다. 乾 金과 兌 金, 震 木과 巽 木,

坤 土와 艮 土는 각기 두개씩인데 앞의 것

이 陽이고 뒤의 것이 陰으로 되어 있다.

、(.2.

, 南' /

1<-.- ~多

IW,

x .. • '*q :: ~~、

l

¢ 離 ,~, ,

"*".)' ~,

,

l ~ 111~{. ∴7~·11 ; [al ~-

~~)/l ":~

' ' ~ -'W;X. -~~' --

/

=、~e;성r

,..c-

後天八卦 cX王八卦) 의 方位圖

。譯 <> <洛書

順 逆

天 地

五行과 河圖 洛書

사관한 일을 위주로 하는 것이 後天八卦이기 때문에 이 後天八卦에서는 陽方과 陰 方이 뚜렷하게 兩分되어 있다. 즉 乾 父, 震 長男, 次 中男, 艮 少男은 모두 아래 쪽 陽方 에 위치하고 있으며, 坤 母, 巽 長女 離 中女, 克 少女는 모두 윗 쪽 ! 食方에 잔란환L있 는 것이다.

.3) 洛書의 活用

洛書의 數 配列은 現代 科學에서 널리 利用되고 있는 重要的 自然 原理이다. 우선 洛書 나 後天八卦에 있어서의 魔方陣으로서의 數字의 配列 順序는 合同21-2 角形을 둘씩 가지고 있다. 이것은 가장 오래된 論理的인 方陣으로서 電子回路網 이나 社經의 回路에 해당한다.

e洛書

,<7'

/W7 8/

易經總論 45

W

9W76 /

3

(合同의 三角形 두쌍)

5 1

各

計 合

劃 W \ \ II/

1234

級 III'術 差

.

算 公

.... : . '(

6789數 ...級

555·差

4321等

e洛書

計 25

計 25

W \

广二卍 [計- : --王

그리고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洛書의 數字에서 5개 짝을 連結해 보면

2 · 7 · 5

· 3 · 8의 合計는 25가 되고, 4 · 9 · 5 · 1 · 6의 合計도 25이다. 또한 2 · 9 · 5 · 1 ·

8의 合計 와 4 · 3 · 5 · 7 · 6의 合計도 25가 된다. 이 原理는 美學的 ~lll뽕t_ry_t

인 밸런스 (Balance) 를 지니는 것으로 現代의 物理, 化學, 工業 등 여러 分野에

서 널리 應用되고 있다. 飛行機, 一 蒸氣船, 疾車의 엔진의二플로페라에서 應用되

고, 扇風機의 날개어~ 이 原理가 適用되고

^、 L -J AI-1

46 易經總論

3. 河圖 先天八卦와 洛門 後天八卦의 比紋

1) 河Iii와 洛書의 比紋

河圖와 洛書는 둘다 易의 根本原理이며, 동시에 宇宙 自然 森羅萬象의 根源的 理

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河圖와 洛習는 두가지 原理이면서 서로가 補完關係를

가져 한쪽이、 없어서 는 앞되는 하나의 體系라 한 수 있다 이재 여기서 河圖와

洛書를 比紋하면서 그 括用J:원

特徵是 산펴 본다면 다음과 간다..

⑥ 體와 ff1의 關係와 數理

河圖는 體가 되고 洛書는 用이 된다. 體엔느리~元이며 一源이다. 顯數元間야기 때문에 河圖와 洛書는 서로 떨어질 수 없고 하나이면서 다르게 活用된다. 河圖의 數

1에서 10까지 를 合計하면 55가 되 나, 이 55 를 각기 다른 數字로 보아 合計하면 10이 된다. 따라서 河圖의 基數, 序數의 마지막 數 10과 같아 진다. 한편 洛書의 數 1에서 9까지를 合計하면 45가 된다. 이 4와 5를 合計하면 9가 된다. 역시 洛書에서의 基數, 序數의 마지막 數인 9와 간아진다.

;

~ L_i _ : } · 4_ · 5_ · 6_ · 7_ · 8_ · 9_ · LO~ 건9_ 10 體 침 ?

li_ 1 _ : 다 · 5_ · t: } ' · t_ 9 = ~ ~ > , 9血

計 100 (5S+ 45)

따

河圖의 數를 合計한 55와 洛宮의 數를 合計한 45를 다시 合計하면 100이 된다. 이 100을

∴總百數라하고 先天과 後天, 體와 用, 河圖數와 洛書數를 合計한 것이기 때문에 重要視한 다 그리고 이 總百數 100은 河圖數와 洛書數가 다 들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2로써 나누어 나온 答 《책읍 大衍의 數라 한다. 만하자면 大衍의 數 50은 河圖와 洛書의 意味가 담겨진 活用의 數라 한 수 있는~이다. 그러므로 著草를 가지고 어떤 일을 占치거 나, 筑竹을 가지고 探著(선시)하는 경우에는 이 大衍의 數 50으로써 즉 著草나 ~개

· 를 가지고 活用하는 것이다.

㊸動과靜

핵고, 洛書는 河圖의 狀態를 나타낸다. 河圖는 太初이고 體이기 때 문에 고요한 靜을 爲主로 하지만, 萬有을 生成하는 認七之意를 지니고 있어 그 數字의 配列에서 陰陽의 數를 함께 가지고 있다. 한편 洛書는 進展이고 用이기 때문에 활

•• ,,,, ~ ~ ~ 구 •... 1 ~ ~ ~ r = ,, 1 : r, r, 1, ,, 11 1 • i .. • m - 1 - = . k : J 1, ,, , 11 n c ri; inl • nl. o -, 1

	籍 다.:i			-	;금%易經總論 47	
				브		
		W." -t -	야	~/~	I~	
	2 · 7			9	P關%	
河圖			洛書			
3	4		3	』	7	

8	5 ~ 10	9				
---	--------	---	--	--	--	--

I·6

⑩相生相克과火金

五行의 運用에 있어서 河圖는 相生의 原理를, 洛書는 相克의 原理를 보여 주고 있다. 河圖에 있어서는 I·6 水 -+ 3·8 木 - 2·7 火 - 5·10 土 - 4·9 金 으로 相生의 順序가 이어지는 데, 洛書에 있어서는 I·6 水 - 2·7 火 -+ 4·9 金 -+ 3·8 木 -+ 5 土로 相克의 順序가 이어진다. 그런데 그림에서 ~1('914·9 金 의 位置가 서로 바뀌어 洛書에 位置하고 있는 것이다. 왜 다른 것은 바뀌지 않고 * 와 金의 位置만 서로 바뀌고 있는가. 이것은 人類의 生活에서 火와 金이 重遷향 役割 을 하기 때문이다.

...

홀단1 原理로 上면 불덩어리 天體였던 것이 식어서 地球가 되고 地球의 땅덩어리 속에서 金屬이 나오기 때문에 火生土, 土生金이 된다. 그러나 f間의 文明을 불을 다 루어 飲食을 調理하고 援房을 취하며, 불2의격간t다루어 生活의「쁘브登」간 들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특히 火克令~o쿠 J 器른-막느억_征服의 歷史가 展開 된 것이 人類 의 발자취이기 때문에 火와 金은 중요한 意味를 갖는다.

2) 先天과 後天의 比較

河圖를 본 단 伏羲八卦를 先天八卦라 하고, 洛書를 읽어 만든 文王八卦를 後天八卦라 한 다; 伏羲씨가 創製했다는 八卦는 天地 自然의 理法에 아긋나지 °

J-고, 文王이 그린 八卦도

또한 하늘에 順應하고 그

때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앞의것을

것을 「後天八卦」 라 한다.

갯~八만느라하고 뒤의

(先天而天不違 後天而奉天時, 乾卦 文言傳)

先天八卦의 數가 進展되는 順序는, 太極 즉 안에 陰陽을 가르는 波動線은 있을지라도, 圓形으로 되어 있고, 後天八卦의 數는 그 順序가 三角形으로 展開된다. 그리고 先天八卦의

數~ fl[§ 0 쿠 요치 거 나가71 1f+ IW 'Eh이齡느 꼬『 0 ;::, '.#. 0 _, ...•...• 1

" _ , - , _ , --- ~ ,

-- ----

I~군1에i~

--

-

-

시C -48易經總塗

수 은

릴땅한

競터"땅할

는라、C2.

`` - 'k 庄둥다하것k

祖두이用;广·

모致利는,

가는理이致一뻘

모

의 ll體은間理

의속91 t天간人

의과서天尤牛書 은

땅등것에後liUtr

白~711《:A 은太루 「4분、一

-@

늘,다굴致

巨

등理

하고

W

3

7

6

3

4

7

6

8

河圖와 洛書는 體用의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體系이 다. 따라서 河圖를 본만 先天八卦의 數理 속에는 洛書에서 은 後天八卦의 數 9가 들어 있 고, 洛書 後天八卦 속에는 河圖 數 10이 들어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先天八 卦의 1에서 8까지의 數가 配列된 것에서 각기 마주 보 고 있는 數 끼리를 合計하면 9가 된 다. 한편 後天八卦의 數理는 1에서 9까지이 나 신제로 卦는 여덟개 뿐이므로 가운데 數 5 를 除外하고 서로 마주 보고 있는 數 끼리룬 合計하면 河圖 數 10이 되는 것이다.

3) 皇極經世書 汀 ~1

中國 宋代의 大學깃므> 易經의 研究 發展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는 宋~드

·(µiA_O 쉰~) 때의 사람으로, 名은 壅넴1· 字는 堯夫저고, 號가 曰皐힐데 이는덥

따(시호)이며, 사람들은 그를 安?꾼生이라 섰었다. 郡康節은 巨視庄인 學說인 「皇極編世書」 40 권과 微視的인 學說인 「梅T易m 라는 著점을 남겼다. 後者는 易經의 占書로서의 活用 에 관한 것이지만, 前者는 宇宙, 地球 自然 人事 등의 모든 事象을 循環과 波動의 原理 에 의해서 파악한 偉大한 業鎖이라 評價된다.

7117-~ 0 ~라ol 시~1.;;!. ~i,;il,-9~ 「一규酒류數 , 라 하고. 이 一元度數는 129. 60Q年이라

" t~ 韋 I(茂(~~묘

易經總論 49 때. : t이고, 一世는 30年으로 하였다. 만하자면 30과 12進法을 번갈아 適用하고 있는 것이다.

一元[(!(I:니킵 一元 • 12會 10, soo x 12 • 129, 600 ~ (f'Vf { fl 미

== - lo, :::: 二: : :: '::~ : 10, ::~ ~ l~ ,z

0 ~

그런데 皇極經世의 一元度數 129, 600年은· 우리 人佑1의 하루 동안의 呼吸과 脈搏數의 合

.•. 二디 , , , _

計와 같다.

1分間 1時間 1日間

· 呼吸 --. 18回 --> 18 X 60 = 1, 080 --> 1, 080 X 24 = 25, 920回 脈搏 - 72

回 --. 72 x 60 c 4, 320 --. 4, 320 x 24 = 103, 680回

一元度數는 十二支를 利用하여 t;!라 潭》의 循環과 마찬가지로 子時로부터 출 J-하여 午`時를

거쳐 亥時 子時로 되돌아 온다., 이 때의 한 時는 屈蟠뎡견인데 그의 學說에 따르면 子時에 丙開

t

하고 丑時에 地關(지벽)하며 寅歷엔 人生판단고

한다. 말하자면 '10, 800年이 두번 지 나고 세버째에 사람이 생긴 것으로 된다.

r -

I ,*

.•.

申

(東) 卯

.,<?W~ .. } / 戌

; .' - . /겔 亥

;i ,~,三 ,r~~'y,

~

그리고 卯 辰 時에 文明이 胎動하고 巳時머1 文明인\ 혼告하고 歷史가 시작되며, 丑時엔

物質혼明인~達-하고 歷史時代에 들어가면,, 未 申 酉 를 거쳐W戌時가 되면 文

' W-
 g
 L '
 ...
 ' .. , . ` Jy
 `
 `
 主W
 j`
 ~!~~>
 ~' ~
 압%
 W \
 - - ' ..• -
 11•예|',예|....." ..i r1•